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한다

주체37(1948)년 4월 어느날 저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모란봉극장에서 예술인들의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종합공연이 한창일 때 《한국독립당》 당수였던 김구가 막이 바뀔 때마다 무대에 오른 예술인들의 옷차림을 보고 대단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김구의 심중을 헤아리신 수령님께서는 예술인들의 옷을 국가에서 해입혔다고, 지금 나라의 형편이 넉넉치 못하지만 국가에서는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온갖 조건을 다 지어주고있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김구가 몹시 놀라며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옛날에는 온갖 지배계급과 유산계급의 롱락물에 지나지 않았던 예술인들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던 그들에게 나라에서 옷이라니?!)

그 모습에서 모든것을 헤아리신듯 수령님께서는 인민이 주권을 잡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예술이 전적으로 인민에게 복무하고있으며 따라서 예술인들도 인민들로부터 사랑과 우대를 받고있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새 생활창조와 직접 관련되여있기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이번에는 김규식이 《장군님, 우리 나라의 곡과 장단에 추는 춤이 제일입니다.》라고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던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에게는 조선춤이 제일 좋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노래도 조선선률에 맞추어 부르는것이 더 듣기 좋습니다. 우리 나라 곡과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추는 저 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응당 조선사람은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합니다.

70이 넘은 김구나 70이 가까워오는 김규식이 난생처음 듣는 소리였다. 양산도장단, 굿거리장단을 비롯한 여러 장단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조선장단이라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설었던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오래동안 버림받고 파묻혔던 민족문화예술을 찾아내여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있다고 하시였다.

《장군님, 문학예술을 민족적이며 인민적인것으로 개화발전시키신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에 머리가 숙어집니다.》

김구와 김규식의 한결같은 이야기에 수령님께서는 선생들 말씀은 너무 과분한 치하라고, 그 말씀을 오늘 공연에 출연한 예술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술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든 문화적재부를 현대적미감과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날 김구와 김규식은 자기들도 고령에나마 조선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살아갈 마음속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림 광 훈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위하여

총련이 동포들의 요구와 리익,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동포들의 생활과 밀착된 봉사복지활동을 근기있게 벌려 대중적지반을 더욱 넓혀나가고있다.

동포생활상담소 운영

총련 효고현 히메지니시 지부가 운영하는 동포생활상담소는 이 지역 동포사회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동포생활상담소의 활발한 운영은 지부일군들이 기울인 끊임없는 사색과 노력의 산물이다.

지난해말 한해 사업을 총화하며 지부일군들은 분회들의 정상운영에 만족해하면서 봉사복지활동에 큰 힘을 넣지 못한데서 교훈을 찾았다.

곧 치밀한 사업조직이 이루어졌다. 지부일군들과 녀성동맹일군들, 상공회성원들을 망라한 동포생활상담소운영협의회가 조직되였다. 분회 열성자들이 지역상담원의 역할을 맡았다. 지부에서는 여러 부문의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인입하여 동포생활상담소의 봉사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하였다.

지난 1월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한 동포생활상담소는 수많은 동포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풀어주고있다.

지부사업을 동포생활과 철저히 밀착시켜 진행해나가니 지부에 대한 동포들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있다.

《우리 분회의 노래》를 부르며

최근에 창작된 《우리 분회의 노래》가 재일동포사회에서 보급되고있다.

가요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위하여, 애국의 성돌인 분회의 강화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동포들의 모습을 그려보이고있다.

…
애국선대 길을 닦고 넘겨준 귀한 재부
존엄높은 삶으로 집집마다 빛내이니
모범기가 펄펄
…
마음도 숨결도 하나같은 단합된 분회, 가슴속에 품은 생각도 숨김없이 터놓는 화목하고 정이 넘치는 분회에 대한 사랑이 가요의 구절구절에 넘쳐난다.

동포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남모르는 고생과 헌신을 보람으로 여기며 애국위업의 귀중한 재부들을 빛내여나가는 분회일군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온다고 말한다.

가요는 동포사회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고 애국운동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동포들의 지향을 담은것으로 하여 지금 널리 불리워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진리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1)

석윤기선생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4.15문학창작단 단장으로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배려를 다 받아안은 석윤기선생은 공화국의 이름있는 작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하다면 어떤 운명적인 선택이 그로 하여금 진리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오르게 하였는가.

※ ※

석윤기선생은 1929년에 경상북도 달성군 동천면의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첫 자식이 아들일 때 가정은 기쁨과 웃음으로 밝아지는 법이건만 석윤기선생의 출생은 오히려 집안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연약하고 가난에 쪼들릴대로 쪼들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먹여살릴 길이 막막하여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소리없이 울군 하였다.

하지만 그는 가난이 그대로 식량이 되였는지 병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났고 다섯살때는 어른들 틈에 끼워 서당공부를 하면서 무척 짧은 기간에 《천자문》을 떼여 신동으로 소문이 났다.

석윤기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다문박식한 인재로 될수 있는 천성을 지니고있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은 그의 모든것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리였다.

1938년 장마로 락동강이 범람하여 얼마 안되는 소작지를 삼켜버리는 바람에 농사를 망쳐버린 그의 일가는 살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느게 되였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살길이 막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그 원한서린 소작살이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942년 석윤기선생은 가족, 친척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당시 대구시 대륜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는데 인차 수재학생으로 공인되였고 학생회장으로까지 선출되였다.

석윤기선생은 16살 되는 해에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열혈청춘이였던 석윤기선생은 해방의 벅찬 감격을 안고 자기의 앞날을 그려보군 하였다.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더없이 아름다와보이는 미래의 대지를 향해 새 삶의 배가 출항하였다는 환희에 그의 가슴은 못견디게 부풀어올랐다.

석윤기선생은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담아 시 《출항》을 써서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보내는 청춘의 그 첫 속삭임으로 하여 상상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과 그 하수인이 된 민족반역의 무리들은 그를 공산주의사상을 퍼뜨린 《빨갱이시인》으로 몰아 경찰서감방으로 끌고가 무지하게 매질하였다.

그는 푸른 꿈을 안고 희망의 바다로 《출항》한 이 시작품 한편때문에 갈비 석대를 바쳐야 하는 무서운 참변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반주검이 되여 들것에 실려나오던 날 그립고그리워 두번씩이나 찾아 떠났던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그는 자기 심장에 불같은 결심을 새겨넣었다.

(내가 갈 곳은 평양이다. 거기에 청춘의 푸른 꿈도 꽃피우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모든것이 있다.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저 민주의 대지야말로 내가 찾고 뿌리내려야 할 운명의 땅이 아닌가!)

그의 이 결심은 전쟁이 일어나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였을 때에야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석윤기선생은 용약 총을 메고 침략자들을 섬멸하는 결전장에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여있었는지 그때는 알수 없었다.

만약 그때 그가 북으로의 길이 힘들다고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후날 인생의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서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고보면 그가 남조선에서 단행한 첫 《출항》은 끝끝내 진리의 대지를 찾았고 그 기슭에 닻을 내린것이였다.

하지만 작가로서 공화국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의지의 행군길이 그의 앞에 놓여있었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미국은 주도세밀한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도발한 조선전쟁의 진상을 숨기기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냈다.

미국은 우선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날조해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상세한 내용도 묻지 않고 즉시 유엔에 제소할것을 지시하였다. 조선전쟁이 저들의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제대로 진척된다는것을 트루맨자신이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미국은 유엔담당 미국무성 차관보 히카슨으로 하여금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소집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한편 유엔주재 미국상임대표는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국무성관리들에 의하여 작성된 이른바 북조선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보고를 읽어주었다. 또한 미국정부의 긴급요청에 기초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의 즉각소집을 강요하였다.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는 미국측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2호로 강압통과되였다.

미국은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전쟁에 들이밀기 위한 《결의》도 날조해냈다. 1950년 6월 27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미국대표는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을 《유엔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는 《무장공격을 물리치며 그 지역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남조선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았다. 남조선에 대한 유엔성원국들의 《원조》란 곧 미국의 대대적인 무력간섭과 추종국들의 조선전쟁참전이였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 제안에 대한 반대와 기권이 있었고 조선대표를 회의에 초청하여 교섭을 진행하자는 정당한 의견도 제기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무장간섭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3호로 채택되였다.

1950년 7월 7일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내세워 조선에서 감행하는 미군의 군사행동이 유엔의 기발밑에 진행되며 추종국가 군대들을 저들의 지휘밑에 두려는 목적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하는 놀음도 벌렸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군》을 파견한다거나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표현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결의》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련합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저들의 침략군을 《유엔군》이라고 우겨댔고 도쿄에 있는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겸임시키였다.

7월 25일에는 도쿄에 있는 미극동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번신시켰으며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들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놓았다.

이렇게 미국은 비법적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들에 빙자하여 조선전쟁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였으며 저들이 조선에서 감행하는 침략전쟁이 마치도 유엔의 사명에 따라 유엔에 의하여 진행되는 《방어적》인것처럼 미화분식하였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하여 미국이 날조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들은 전적으로 미국의 각본에 따라 조작된것으로서 완전한 비법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된다.

유엔헌장 제34조는 임의의 분쟁 또는 국제적마찰이나 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임의의 사태의 지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분쟁이나 사태를 조사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미국은 6월 25일 유엔《결의》를 채택할 때 유엔사무총장앞으로 보내여온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보고와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만을 기초문건으로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것들은 미국이 고안해냈거나 리승만괴뢰정부로부터 얻은 정보자료에 기초한것이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확인도 없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외곡하여 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비법적인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유엔헌장 제32조는 분쟁문제가 상정되는 경우 분쟁의 당사국을 문제토의에 참가시킬데 대해 규제하고있다.

미국은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괴뢰대표만을 회의에 초청하여 저들의 주장이 담긴 《결의》들을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유엔헌장 제27조 3항은 모든 문제들에 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들은 모든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함하여 리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전쟁과 관련한 모든 《결의》들을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의 참가없이 비법적으로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하기에 당시 쏘련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들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쏘련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는것, 《결의》는 유엔기발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되도록 하고있다는것, 따라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비법적이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고 선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은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장 철 수

지난 세기 50년대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은 침략자의 참담한 패배로 끝났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압살기도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광란적으로 벌리는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남조선을 반공화국압살과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1950년대말 전술핵미싸일과 원자포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또한 정전협정에 저들이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화국을 노린 각종 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특히 1982년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을 공식화한 미국은 2009년에는 북침핵전쟁기도를 《확장된 억제력》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북침핵전쟁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미국은 2002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한데 이어 2013년 10월에는 상용무력과 핵타격수단으로 공화국을 선제공격한다는 이른바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작성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핵전쟁연습들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1954년에 《포커스 렌즈》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그후 《을지 포커스 렌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포커스 레티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프리덤 쉴드》라는 각이한 간판을 달고 오늘까지 집요하게 감행되고있다.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 《작전계획 5015》, 《작전계획 8044》, 《작전계획 8022》, 《작전계획 8010》을 비롯한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핵선제공격연습과 핵폭탄투하훈련, 공화국의 중요전략적대상들을 목표로 하는 특수전훈련과 《북조선점령후 안정화작전》 등 그 목적과 내용이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이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후 북침전쟁소동은 더욱 위험천만하게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5월 남조선을 행각한 현 미국집권자가 윤석열역도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를 모의한데 따라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을지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졌고 련이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조선동해에서 미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타격집단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남조선련합해상훈련이 진행되였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사이에는 대규모미국남조선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강행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적대행위에 더욱더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지난 1월 《핵전쟁지휘기》, 《날아다니는 펜타곤》으로 불리우는 공중지휘통제기 《E-4B》를 타고 남조선지역에 기여든 미국방장관은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기도를 거리낌없이 드러내면서 윤석열역도의 대결광기를 한껏 부채질하였다.

그리고 2월에는 워싱톤에서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과 련합공중훈련을 여러 차례 강행하였다.

또한 3월에는 전략폭격기 《B-1B》와 핵전략폭격기 《B-52H》를 련이어 들이밀어 남조선호전광들과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련합공중훈련을 수차례 강행하였으며 《프리덤 쉴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에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원산상륙》과 《평양점령》, 《참수작전》 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방어와 반격》이라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곧장 《점령과 안정화》단계로 돌입하는 철두철미 공격적이며 침략적인 연습소동을 벌려놓았다.

지난 4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5년만에 재개한 《쌍룡》련합상륙훈련에 수십척의 함정, 각종 전투기 70여대, 상륙돌격장갑차 50대, 1만명이상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해안상륙 및 평양등 내륙진공연습을 진행하고 각종 전투기와 공중급유수송기 등 100여대가 참가한 《련합편대군종합훈련》도 강행하였다.

이러한 속에 지난 4월말 윤석열역도를 백악관에 불러들인 현 미국집권자는 《핵협의그루빠》 신설과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들의 남조선에로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 합동군사연습의 증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워싱톤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함으로써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핵전쟁준비를 본격적인 실행단계에서 추진할 흉심을 다시금 드러내놓았다.

미국은 또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무려 5차에 걸쳐 군사분계선가까이에서 극히 도발적인 력대 최대규모의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으며 6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6년만에 처음으로 순항미싸일탑재핵추진잠수함 《미시간》호를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등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세계적으로 크고작은 쌍무 및 다무적인 군사연습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있지만 조선반도에서처럼 주권국가의 《정권종말》을 총적목표로 하여 감행되는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은 그 류례가 없는것이다.

미국의 호전적망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뜩이나 불안정을 배태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수위는 핵전쟁발발의 림계점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온 장본인, 정세격화의 주범이며 미국이 있는한 언제 가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깃들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